



지난 28일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관에서 총 8명의 교수들이 프라임사업 후속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 1면에서 이어짐

이어 “신임 황 부총장이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신설을 추진하면서 구성원과의 협의 절차도 없는 형태로 결정된 인원 조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총장께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후 반려하셨다고 들었다”며 행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실 김동준 계장은 “총장께선 구성원 간 소통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출장 중이라 아직 이와 관련된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대 교수들은 서신에서 총장에게 ▲신임 황주호 부총장 해임 ▲교육부에 제출한 인원조정안 철회 ▲비상식적 인 행정절차 재발방지 약속 등 세 가지의 사항을 요구했다.

외국어대학(외대) 교수들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8일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동호(한국어학) 교수는 “학과 정원 조정이 있다면, 학장들은 충분히 교수들과 논의를 하고, 다수의 교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학장 서명만 받고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대 교수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모든 결정을 하라고 들었다”며 “16일에 이 사안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외대 교수들은 “우리는 정원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절차와 방식의 문제를 느낀다”고 뜻을 모았다. 김찬기(스페인어학) 교수는 “지금 국제캠에서 목소리를 내는 곳이 외대밖에 없지만, 이런 행동들이 단과대학의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학내 구성원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외대가 이원화 문제의 핵심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예술·디자인대학(예디) 역시 내부에서 프

05월 03일(화)
프라임사업 선정 탈락05월 12일(목)
프라임사업 후속 위한 학장회의(1)05월 16일(월)
프라임사업 후속 위한 학장회의(2)05월 20일(금)
프라임사업 후속 정원조정 계획
교육부에 제출05월 24일(화)
외국어대학 교수 긴급회의(1)05월 25일(수)
체육대학 전체 교수회의05월 26일(목)
외국어대학 교수 긴급회의(2)

라임사업 후속과 관련한 정원조정안을 반대하는 학과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의류디자인학 한기창 학과장은 “우리학과 교수들은 전원 반대를 했다”며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를 신설하려면 공대 내에서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전혀 관계없는 체육대학, 외국어대학, 예술·디자인대학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결과를 보니 우리학과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의류디자인학과 교수들은 부총장과 면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학과장은 “앞으로도 정원조정이 계속해

서 있을 텐데 매번 해당 학과 교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올바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동민(산업디자인학) 교수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급박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급할수록 절차와 형식을 잘 지키며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라임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일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의견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체육대학은 조정안에 동의한 상태다. 전의기(태권도학) 학장은 “구성원의 합의가 원활히 이뤄졌다”며 “지난달 25일 오후 5시 체육대학 전체 교수회의에서 학교가 나고자 하는 방향을 설명했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체대 교수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육대학 역시 정원조정안이 제출되고 난 뒤에 관련 논의가 이뤄진 점은 다른 단과대학과 동일했다.

황 부총장은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신설에 대한 정원조정이 국제캠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국제캠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제캠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답했다. 끝으로 그는 “초기에 감정이 격앙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며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초기 소통에 미흡했다. 앞으로 소통할 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프라임사업 후속 조치가 “명품 대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 내용인 ‘Add on track’에 대해 설명했다. 황 부총장은 “Add on track”은 처음으로 새로 신설될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에 도입될 것”이라며 “Add on track”은 전공처럼 새로운 사일로(Silo)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수요의 변화에 맞춰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영어학부, 현행 3개 전공에서 2개 학과로 개편

빠르면 2018년 … 미정원 “확정 된 것 없어”

영어학부 편제개편

정현진 기자 ohyunjin@khu.ac.kr

【서울】 지난달 16일 영어학부 편제개편 설명회가 오비스홀 B111호에서 열렸다. 이날 문과대학 김종복(영어학) 학장은 “현재 학부 체제에서의 소통 부족 문제와 전공 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학과 체제로의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현재 영어학부는 영어학전공, 영문학전공, 통번역학전공으로 구성돼 있다. 신입생은 세 학과의 입문 수업을 모두 수강한 후 2학년이 되면 본 전공을 선택한다. 처음 학부제를 시작한 것은 1998년도로 ‘세 학문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복합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처음 취지와는 달리 세 전공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한 학부보다는 세 개의 분리된 학과처럼 운영됐다. 김 학장은 “세 전공이 하나로 합치기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영어영문학과와 응용영어통번역학과로 나누어 지금보다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편제개편이 확정되면 영어영문학과와 응용영어통번역학과가 각 40명의 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편제개편 논의로 관련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이번 설명회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편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기존의 영어학부에서 분리되는 응용영어통번역학과의 커리큘럼이었다. 김 학장은 “교과과정을 새롭게 개편하게 된다면 커리큘럼 구성은 물론, 교차수강 인정이나 교직이수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학부체제에서 통번역학과가 겪었던 ‘교수충원’ 문제에 대해서도 “응용영어통번역학과가 신설되면 내후년까지 최소 6~7명의 전임교수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에 끊임없이 제기됐던 국제캠퍼스(국제캠)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와의 유사성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통번역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영어영문학과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영어학부

영어학전공

영문학정공

통번역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응용영어통번역학과

와의 유사성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김 학장은 “모든 개편은 문과대학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영어영문학과나 응용영어통번역학과가 국제캠 외국어대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설명회 다음날인 17일 영어학부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편제개편에 관한 설문조사의 오프라인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의 취합 결과를 토대로 김 학장과 면담을 가졌다. 설문에는 영어학부 총 재적 인원 449명 중 228명(50.7%)이 참여했으며, 편제개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찬성 111표(48.6%), 반대 32표(14.0%) 등으로 ‘찬성’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편제개편 찬성 층 의견으로는 교수 충원과 교과과정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며 학부로서의 장점이 없다는 점, 응용영어통번역학과의 신설이 통번역 대학원 설립 토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기대 등이 있었다. 반대 층 의견으로는 학부 내 경험을 통해 여려 전공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너무 급하게 개편이 진행된다는 점이 있었다. 영어학과 영문학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기됐다.

영어학부 이현자(통번역학 2015) 회장은 “지난 17일 학생들의 의견을 영어학부 행정실에 최종적으로 전달했으며 20일 이후 대학본부의 결정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대학본부는 심사결과 복잡한 행정상의 절차로 인해 최소 2018년은 되어야 편제개편을 진행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시 행 예정년도이던 2017년은 신입생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9월까지 커리큘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다소 빠듯한 일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회장은 “더 신중하고 정확한 개편을 위해 예정했던 것보다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편제개편을 담당하는 미래정책원 층은 “편제개편이 언제 확정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 금학기부터의 강의평가 변동사항

- 수시평가가 폐지되고 학기말 평가만 실시
- 문항수가 10개에서 9개로 변경
- 팀티칭 강좌는 1회만 평가
- 수업유형과 관계없이 공통 문항으로 실시

● 기 간 : 2016. 06. 01(수)~06. 28(화)

● 대 상 : 서울 · 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 성적 열람 및 공지 기간 : 2016. 07. 01(금)~2016. 07. 05(화)

● 강의평가 실시 여부 따른 성적 조회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16. 06. 15(수)~2016. 06. 29(수), (단, 06. 26~06. 27 제외)
- ※ 성적입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16. 07. 01(금)~2016. 07. 05(화)

● 강의평가 실시 방법

-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2)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 3) 회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정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주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주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 4) 강좌목록 회면에서 평가를 미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 5)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 6)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 7)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환경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 8)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

사령

<(명) 수습기자

경소정 (한방재료공학과 2015)

고나원 (경영학과 2016)

고동근 (골프산업학과 2013)

권유진 (사회학과 2014)

김가영 (도예학과 2016)

김성수 (컴퓨터공학과 2016)

김성현 (기계공학과 2016)

김은수 (프랑스어학과 2015)

김채윤 (연극영화학과 2016)

김태윤 (일본어학과 2015)

김태은 (중국어학과 2015)

김태희 (컴퓨터공학과 2015)

박수민 (자율전공학과 2016)

박수현 (언론정보학과 2015)

박유진 (경영학과 2015)

박지영 (언론정보학과 2016)

박진경 (스포츠의학과 2016)

설지연 (프랑스어학과 2015)

송현주 (언론정보학과 2016)

양윤주 (언론정보학과 2016)

위성은 (전자전파공학과 2016)

유진성 (태권도학과 2016)

이성은 (응용물리학과 2015)

이예린 (경영학과 2015)

임보현 (체육학과 2016)

임창민 (언론정보학과 2014)

임채언 (아동가족학과 2014)

임채현 (경제학과 2016)

장소영 (Hospitality 경영학과 2016)

정민호 (국제학과 2016)

정현진 (영어학부 2015)

주현용 (지리학과 2015)

홍지수 (도예학과 2015)